

### 나주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연간 13만원 절감 효과

나주시가 올해 난방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해 정부의 대기 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조치로 이달 11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신청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중발)량을 시간당 0.1t미만으로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

특히 배기가스 배출 시 방출되

는 열을 흡수,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간 13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저(低)녹스(NOx)라는 명칭은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 준다 해서 붙여졌다.

시는 올해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일러 1대 당 일반가구(50대)는 20만원, 저소득층(10대)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외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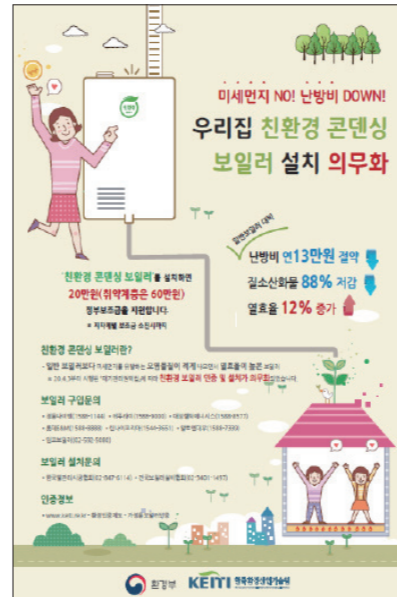
신청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나주시 관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당해연도 이전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공공기관·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각 가정의 구조나 환경 등 설치 여건을 고려해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쾌적



한 대기 환경 조성은 물론 연료비 절감 혜택이 있는 이번 사업에 보일러 교체에 앞선 가정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가구 대상

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 2천 원이다.

아울러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도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되며 부양의무자의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및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등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강진 군동면 지사체 ‘나눔 공간’ 채워지는 이웃 사랑



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함께 주민들의 마음도 움츠린 새해에 군동면(면장 강준혁)에 기부 열로 온정이 넘치고 있다.

군동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군동면 청년회에서 100만 원, 호동마을 윤택한씨가 100만 원, 군동면 사랑회 20만 원, 갈전마을 김득주 이장 20만 원, 월봉마을 임윤식 이장 10만 원, 안지마을 송하중 이장 10만원 등 총 260만 원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모금처 ‘나눔공간’에는 2년 만에 걸쳐 2천 9백여만 원의 후

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이 후원금은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명절음식 나눔행사 등의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3기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은주 민간위원장은 “2021년 새해에도 후원금 모금 등 민간 재원 확충에 주력하여 군동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역에서 스스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무안군, 치매관리 맞춤형 서비스



무안군은 새해에도 치매관리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상담, 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는 협약 병원에 연계하여 진단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 조기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위생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치매환자 1:1 가정방문 쉽터 운영을 확대하고 인지자극활동 워크북, 치매가이드북, 미끄럼방지매트 등이 구성된 기억주머니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뇌기능 자극과 인지기능저하 지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화순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화순군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

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1년 동안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80명까지 접수한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함께 임신 출산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화순=박순철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